

# 2004년, 모국어의 어휘에 새로운 어휘의 뿌리를 낳은

## 곤살로 로하스와 세르반테스상

글 | 고혜선



- 2004년 세르반테스상 수상자로 선정된 곤살로 로하스.  
1948년 《인간의 불행》이라는 시집으로 시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곤살로 로하스는 이번 수상 소식을 듣고 어린애처럼 마냥 즐거워했다. 90을 바라보는 그이지만 그는 여전히 젊은이들 못지않은 활력을 뽐어내고 있다.

스페인어권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문학상은 대략 10여 개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세르반테스(스페인), 후안 룰포(멕시코), 로물로 가예고스(베네수엘라)처럼 문호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 알파과라나 플라네타, 세익스 바랄 상처럼 출판사가 주는 상, 레이나 소피아 상처럼 저명인사의 이름을 딴 상 등이 그것이다. 국내문인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과 달리 이들 상들은 국적을 막론하고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문학상 중에서 일명 스페인어권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이 바로 세르반테스상이다. 1975년에 스페인 문화부가 제정. 이듬해인 1976년부터 수상자를 배출하기 시작한 이 상은 생존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수상자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1979년에 스페인 시인 헤라르도 디에고와 아르헨티나의 문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를 공동수상자로 결정하면서 이듬해부터는 단일 수상자를 내는 것으로 원칙을 다시 정했다. 지금까지 스페인 출신 15명, 중남미 출신 14명을 수상자로 선출했다. 스페인에서 주관하는 상이다 보니 스페인 출신들이 아무래도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매해 12월에 결정되어 세르반테스가 세상을 떠난 4월 23일에 수여되는 이 문학상 위원회는 칠레 시인 곤살로 로하스Gonzalo Rojas를 2004년 수상자로 결정했다. 1917년에 태어난 로하스는 이 소식을 듣고, “세르반테스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상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인 스페인어권의 가장 영광스런 상”이고, “세르반테스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 세상 모든 광인狂人들의 머릿속에 살아있는 분”이라며 어린애처럼 즐거워했던 얘기가 들린다. 1946년에 아직 출판되지 않은 시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칠레 문인상을 수상하고 1992년에는 스페인의 레이나 소피아상과 칠레 문학상을 수상한 86세의 노 시인에게 이 상은 또 하나의 영광임에 틀림없었으리라.

곤살로 로하스는 1948년 《인간의 불행》이라는 시집으로 시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어서 《죽음에 맞서서》(1964), 《어둠》(1977), 《땅을 넘어서》(1979), 《번개의》(1981), 《빛》(1986), 《유언의 물질》(1988), 《편안한 독자》(1990), 《흔탁한 강》(1996), 《정선된 시》(1997) 등을 출간했다. 시인은 또한 대학과 문학활동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1948년부터 1952년까지는 발파라이소 대학교, 1952년부터 1971년까지는 콘셉시온 대학교에서 강의와 함께 하계 창작교실을 열기도 했다.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이 창작교실에 참



• 세르반테스학회 <http://cvc.cervantes.es>

• 세르반테스상은 스페인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이다.

1975년에 스페인 문화부에서 제정했으며 지금까지 스페인

출신 15명, 중남미 출신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어한 사람 중의 하나로, “내 생각에는 이 창작교실이 중남미 문학의 봄의 산실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엔데 정권하에서 주 중국 칠레 대사관의 문화담당관, 쿠바 대리대사로 재직하던 중 피노체트의 쿠데타 소식을 들은 그는 결국 동독으로 가서 그곳의 대학교에서 중남미 문학과 교수로 1954년부터 1975년까지 재직했으며, 구소련에서 등지를 틀기도 했다. 1975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 대학교에서 문학연구에 전념하기도 했으며, 미국, 스페인, 일본, 체코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등지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다.

세르반테스상 역대 수상자들도 시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찍이 1999년의 수상자 칠레의 호르헤 에드워즈는 시인을 가리켜 “언어의 마술사로 스페인어라는 뿌리에 새로운 어휘의 작은 뿌리를 낳는 순수한 서정주의자”라고 했으며, 1987년의 수상자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중남미 소설가들이 그와 같은 훌륭한 시인들 덕분에 풍요로운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들의 지적처럼 곤살로 로하스는 언어의 마술사다. 유성성이 가득 찬 시어로 존재론적 실존적인 문제의식을 육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부드럽게 싸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그의 시에서 어떤 이들은 짙은 사랑을, 어떤 이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발견한다.

그의 시는 친절하지 않다. 시 한 행에서 다른 행으로 넘어갈 때 연결고리를 생략하며, 어떤 때는 지그재그로, 어떤 때는 중얼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때로는 이상한 기호, 이상한 리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이 글자 A의 파생어를 가지고 노래한 <천식은 사랑이다 *Asma es amor*>라는 시를 보자.

사랑이란 단어가 시작하는 A보다

천식이라는 단어가 시작하는 A 때문에

나는 당신의 공기가 없어 숨이 막힌다.

그곳에 머물고 있는 높다높은 당신 내게 길을 열어다오.

당신이 누워 있는 비행기, 바람 위에

나무로 만들어 유리를 씌운 비행기,

그 안에 있지 않는 당신,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위대한 아름다운 발들,

파라온의 암말과 같던 당신의 등뼈,

이미 그 안에 없다. 숨이 차서 정말 힘들군.

당신은 이해하리라. 천식이 사랑이라는 걸.

《혼탁한 강》에 실린 이 시는 ‘나의 켈타우루스 일다에게’ 바치는 노래이다. 그의 어머니 일다 Hilda의 관 앞에서 떠오른 시상시

했으리라. 네 살 때 아버지를 잃은 시인에게 어머니는 모든 존재였다. 그의 6남매를 늘 '우리 여섯 새끼'라 불렀던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일을 해야 했다. 그렇게 강인해 보이던 어머니의 시신을 보며 시인은 슬픔에 겨워 숨을 쉴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천식 증세를 겪고 있던 시인은 사랑과 천식 두 단어가 모두 A로 시작하며, A라는 글자모양이 두 사람이 함께 합친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사랑과 목에 어떤 것이 가로 막혀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천식임을 생각하고 두 이미지를 연결시켰을 것이다.

《죽음에 맞서서》에 실린 <아름다운 어둠>이라는 시를 보자.

어젯밤 나는 당신을 만졌고 느꼈다.

손이 내 손저 너머로도망가지 않았고

몸도, 귀도 도망가지 않았다.

거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느낀 거다.

피처럼, 아니면 떠도는 구름처럼 그렇게 두근댔다.

당신은 오르고 내리는 어둠을

불꽃을 튀기며 발끝으로 달렸다.

나무로 만든 내 집을 다 달렸다.

내 집의 창문도 다 열었다.

네 가슴에서 온 밤이 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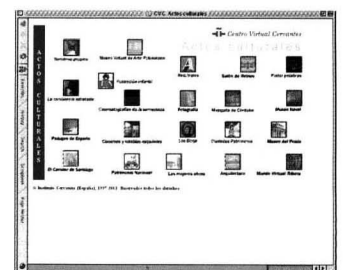
심연의 딸이여, 말없는 여인이여 무사적인 여인이여,

당신은너무도 아름답고너무도 두려운 사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빛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리라.

23세에 불발로 끝난 첫사랑을 경험한 시인은 25세에 영국인 부모를 둔 유부녀 마리아를 만난다. 마리아는 결국 이혼하고 시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나 42세 되던 해에 알게 된 일다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끝난다. 어머니의 이름과 똑같은 이 두 번째 부인 일다와의 사랑은 주로 《죽음에 맞서서》에 수록되어 있다. 위의 시도 일다와의 만남을 노래한 것이다. 90을 바라보는 곤살로 로하스는 칠레 남부도시 Chillan에 살면서 칠레 창작학회의 고문, 문인협회의 고문으로 활약하며 아직도 시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그의 활발한 성격 덕분에 건강도 유지하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

- 이 글을 쓴 고혜선은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인스티투토 카로이 쿠에르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대에서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에 관한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오리건 주립대학교 스페인어과 교환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어문학부 스페인어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동서양문학에 나타난 거울의 이미지 *El espejo en la Lit. Occidental*》(폐루), 《메스티소의 나라들》 등이 있으며 역서로 《멕시코의 어제와 오늘》 등이 있다. 《마당 깊은 집》,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아베의 가족》, 《짧은 날의 초상》 등 우리 소설을 스페인어로 옮겼다.



- 세르반테스 문화원  
<http://cvc.cervantes.es/actcult/>